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진현



최근 20~30대 문화애호가들 사이에 자주 오르내리는 도시가 있다. 다른 아님 울산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명 전시 회나 공연을 보려면 서울로 원정 관람을 떠나야 했지만 요즘은 사장이 달리겠다. 오히려 서울에서 울산으로 내려오는 역(逆) 원정 관객들이 늘고 있다. 울산은 산 막한 공업도시로 알고 있는 중장년층들에겐 뚱딴지같은 얘기이지만 사실이다. 이 모든 게 1998년 6월 13일 현대중공업이 '현대예술관'을 개관한 이후 나타난 새로운 풍속이다.

'문화 울산' 이끈 현대예술관

현대예술관은 개관과 동시에 문화 불모지 울산을 예술의 선율로 흔들어 놓았다. 초현대식 공연장과 갤러리를 갖춘 현대예술관은 대형 뮤지컬 '명성황후'로 첫 테이프를 끊어 지역사회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대도시도 아닌 지방에, 그것도 회색도시 울산에 유명 뮤지컬이 판을 벌인 예가 없었던 것이다. 최근 후 소주잔을 기울이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조선소 근로자

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뮤지컬이나 콘서트는 화이트 칼라들이나 즐기는 고상한 취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밀바탕에는 현대중공업의 야심없는 지원이 있었다. 현대중공업

2% 부족한 유·스퀘어 문화관

은 본거지인 울산을 중심으로 메세나와 지역사회 공연활동을 결합시켰다. 특히 연간 150억 원에 이르는 예산과 전문인력의 기획력은 현대예술관의 강점이었다. 개관 이후 10년 동안 700여 회 공연이 열렸으며 공연 회당 평균 객석 점유율도 90%를 넘었다. 특히 공연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초대권 대신 3만~5만 원의 가격에 사라 장이나 소수미, 정경화 등 '빅3'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최근엔 1천원으로 고급공연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음악회'도 열고 있다.

공연뿐만 아니라 현대예술관의 갤러리는 '21세기 현대미술거장전', '이탈리아

판화 400년 전' 등 블록버스터전을 유치해 지역민들의 문화갈증을 셧아냈다.

현대예술관의 성과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이 지난 5월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 터미널 옆에 개관한 유·스퀘어 문화관(문화관) 때문이다.

지난해 문화관이 광주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은 장밋빛 꿈에 부풀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첨단 공연장과 갤러리를 갖춘 공간인 데다, 메세나 대상까지 수상한 문화기업이 운영하는 만큼 '달라도 뭔가 다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기대는 개관과 동시에 실망으로 바뀌었다. 문화기업으로서의 축적된 노하우로 지역민들에게 문화나눔을 선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공연장과 갤러리를 빌려주는 '대관(貸館) 문화관'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화관이 개관 기념 공연으로 손숙의 연극 '어머니'를 무대에 올리면서 주로 지역의 VIP 인사들을 초청해 시민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

무엇보다 미술인들의 허탈감은 커졌다. 이들은 금호가 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에서 미술관을 운영해온 경험을 만큼

광주작가들의 창작열을 자극하는 참신한 기획전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문화관이 금호미술관의 지역작가 소장 작품들로 개관전을 꾸리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역 쟁기는 문화나눔을

물론 유스퀘어 문화관은 개관 자체만으로 지역 문화계의 빅뉴스다. 전국 최고의 음향시설과 광주문예회관보다 40% 저렴한 대여료는 문화관이 광주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하다. 금호를 빼고는 한국의 문화관들이 이를 기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문화기업으로서의 위상과 역량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지금의 문화관 콘텐츠와 운영방식은 메세나의 근간인 문화나눔과는 분명 거리가 멀다.

현대예술관이 울산의 문화지형을 바꿔놓은 것은 '지역'을 먼저 쟁기는 현대중공업의 배려 덕분이다. 제 아무리 한국을 대표하는 메세나 기업이라고 자부한들 정작 '홈그라운드 페스티벌'을 위한 서비스에 인색하다면 천히할 뿐이다. 문화관이 광주의 랜드마크가 되려면 지역민들의 일상속으로 스며드는 문화나눔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유스퀘어 문화관의 설립취지인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행순

요즈음과 같은 혼란과 갈등, 폭력이 빈번한 사회에서 '비폭력 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연민의 대화(Compassionate Communication)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대화법은 미국의 마셜 로젠 버그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폭력'하면 우리는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배제시킨 무기나 신체를 사용한 육체적 손상만 연상한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힘은 육체적 손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력 수단이 될 수 있다.

폭력적인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만 줄뿐이다. 내가 진짜 비폭력 대화법을 알았더라면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실수 아

기고

나석주



요즘 신문, 방송 보기가 겁이 난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공공 기관들이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어 신(神)도 깜짝깜짝 놀라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필자도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 연간휴가와 휴일을 합쳐 한 해의 절반에 육박하는 171일을 놀고 있다는 사실과 한번에 8호봉을 승급했다는 발표내용 등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과 함께 화가 치민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공기업 선

곳에서 14곳으로 줄이는 등 조직을 대폭 감축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도 조직 슬림화와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춰 경영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중 키티미터당 가장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보다 더 탄력적이고 강한 조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사운영 핵심 중 하나인 예산 및 원가절감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상품권 사주기, 간부들의 임금반납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

생명의 언어 '비폭력 대화'

다. 부부싸움 중에 내뱉은 한 마디가 비수가 되고, 성적이 떨어진 자녀를 향한 부모의 꾸지람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차살 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죽기 전에 생명의 전화나 한번 해 보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생명의 전화(전국 1588-9191, 광주 232-9192)'에 전화를 했다. 그리고 전화 상담자는 말로써 그 사람을 자살로부터 구해냈다. 혀의 이중성, 곧 말의 위력을 새삼스럽게 실감할 수 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사람들을 주관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말을 자주 한다. "A는 너무 정치적이야. B는 진짜 이기적이다" 등. 이러한 우리의 언어 문화 속에서 A는 정치적, B는 이기적, C는 극단적 인물로 규정지어진다. 비폭력 대화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판단을 경계하고, 단지 객관적 상황과 행동만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비폭력 대화는 들리는 말 자체에 대한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을 자제한다. 현재 내가 무엇을 관찰하며, 그것에

나 그 어떤 실패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늦게나마 비폭력 대화법을 배우면서 실생활에 적용해보니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훨씬 쉬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비폭력 대화는 부부 특히 신혼부부가 배워야 한다. 청소년과 교사가 배워야 한다. 모든 직장에서 노·사가 함께 몸에 익혀야 한다. 비폭력 대화가 필요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어디 있으랴. 비폭력 대화는 몇 번의 강의를 듣고 쉽게 체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개 또는 비공개 연습모임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대안들이 가능했었을까 봐 놀라 봐야한다.

광주에서도 비폭력 대화 강좌가 차례로 있었지만 이번에 '한국비폭력대학센터' 대표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가 '비폭력'이라는 수동적 의미를 넘어서 서로를 살리는 능동적인 '생명의 언어'를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전남대 약대 교수·(사)국제과학문화 교류센터 대표〉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외국인 신부들의 자국 농산물 반입 막아야

얼마 전 미국에 갔을 때 일이다. 위싱턴 델리스 공항에 도착했는데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과 일본발 비행기 탑승권 전원을 대상으로 불법 농산물 반입 검사를 했다. 일부 승객으로부터 불법 반입하려던 농산물을 압수했고 적게는 300달러에서 많게는 몇 천 달러까지 벌금을 문だ고 했다.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농산물이 불법 반입되고 있다고 한다. 다음 아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원인은 부모의 행동을 자녀들이 배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부모들의 무지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내 자녀의 교통안전은 그것을 지키는 부모들의 무심코 하는 행동이 자녀들의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교통사고 예방은 곧 가정의 행복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교통선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본다. 어른들의 질서의식은 곧 어린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차세대 주역인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내 자녀의 교통안전은 그것을 지키는 부모들의 무심코 하는 행동이 자녀들의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것이다. ▲남준희·광주시 남구 진월동

어른들의 교통질서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

시설

'청정 전남'이 CO₂ 배출 전국 1위라니

전남이 '전국 최다 이산화탄소(CO₂) 배출지역'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2007년 제조업·광업 분야 업체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전남은 연간 5천471만t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제조업·광업 분야가 배출하는 산업체들이 내뿜는 것이다.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전남이 이 같은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은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가 많은 덕이다. 올해로 설립 40년을 맞은 여수국가산단은 대형 석유·화학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의 산업생산을 선도하는 동시에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를 줄이는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소포인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생존을 위한 과제다.

사교육 경감 대책 성과 거두려면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달부터 학원 불법 영업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도입한 데 이어 7월에는 전국 457개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사교육비 문제는 중산층 및 서민대책의 핵심 과제"라고 밝힌 이후 사교육비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아심 찬 사교육 대책을 내놓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났기 때문이다.

우선 학파라치 제도는 사설학원의 불법영업을 막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

오히려 대개적인 단속에 따른 고액 비밀과와나 개인 과외가 늘어나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현재의 턱 없는 단속 인력으로는 반짝 단속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만 거둘 수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역시 일시적 방편일 뿐 실질적인 사교육 대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사교육 줄이기는 공교육 활성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교사의 질과 교육 내용, 학교시설이 사교육 현장보다 뒤진다면 사교육 수요는 줄지 않는다. 결국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고는 어떤 사교육 대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이 근본 차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과 함께 의문도 제기되고

無等鼓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김치를 세계 5대 건강 음식으로 꼽은 것은 오래 전의 얘기다. 전 미국 비만협회장 스텐 박사는 한국음식을 비만 예방식단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한식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최근 들어 외국 유수의 언론들이 한식의 우수성을 앞다퉈 보도하는가 하면, 국내외 연구

진들이 그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자료를 찾고 있다.

한식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최근 들어 외국 유수의 언론들이 한식의 우수성을 앞다퉈 보도하는가 하면, 국내외 연구

진들이 그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자료를 찾고 있다.

한식(韓食)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김치를 세계 5대 건강 음식으로 꼽은 것은 오래 전의 얘기다. 전 미국 비만협회장 스텐 박사는 한국음식을 비만 예방식단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한국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최근 들어 외국 유수의 언론들이 한식의 우수성을 앞다퉈 보도하는가 하면, 국내외 연구

진들이 그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자료를 찾고 있다.

한국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최근 들어 외국 유수의 언론들이 한식의 우수성을 앞다퉈 보도하는가 하면, 국내외 연구

진들이 그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자료를 찾고 있다.

한국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최근 들어 외국 유수의 언론들이 한식의 우수성을 앞다퉈 보도하는가 하면, 국내외 연구

진들이 그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자료를 찾고 있다.

한국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최근 들어 외국 유수의 언론들이 한식의 우수성을 앞다퉈 보도하는가 하면, 국내외 연구

진들이 그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자료를 찾고 있다.

한국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최근 들어 외국 유수의 언론들이 한식의 우수성을 앞다퉈 보도하는가 하면, 국내외 연구

진들이 그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자료를 찾고 있다.

한국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최근 들어 외국 유수의 언론들이 한식의 우수